스포츠가 세계 선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that Sports Make on the World Mission

이 정 기**

고신대학교 특수 선교학부 교수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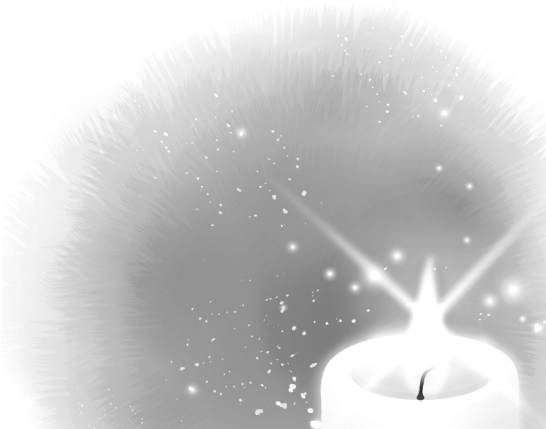
Ⅰ. 서론 | 260

Ⅱ. 세계 선교 동향과 과제 | 262

Ⅲ. 전문인 선교사와 팀 사역의 필요성 | 268

Ⅳ. 스포츠 선교 전략 | 274

Ⅴ. 제언 및 결론 | 286



요약

스포츠가 세계 선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먼저 21세기 새 천년의 선교 시대를 맞이해서 당면한 선교 현장이 무척 척박한 가운데 북위 10도에서 40도 구간의 선교 난 지역에 속한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땅을 복음화 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그리고 급속도로 닫혀져 가는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선교사역의 계속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인 선교사들의 시급성과 더불어서 팀 사역의 전략들을 세워야 한다. 특히 전 세계는 갈수록 전통적인 선교 방식인 목회자적인 관점에서의 사역으로는 입국을 거절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고 혹 입국한다 하더라도 결코 선교 사역과 활동이 쉽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본격적인 전문인 선교사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스포츠 선교가 전문인 선교의 영역에 있어서 결코 빼 놓을 수 없는 귀중한 선교의 도구임을 제시했다. 스포츠는 가까운

이웃은 물론 국가, 인종, 문화, 언어를 초월하여 어느 지역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교의 매개체이자 대화의 접촉점을 형성해 주는 귀중한 선교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스포츠라는 달란트 통해서 다양한 선교 현장을 팀 사역으로 구사할 때에 귀중한 선교 열매들은 보다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쩌면 주어진 선교의 귀한 도구로서 이 스포츠를 통한 선교 사역을 보다 더 활성화 하고 연구해야 할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

* 고신대학교 교내 지원금에 의한 논문
2012. 3. 신앙과 학문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요약 한 논문임

** 러시아 국립 체육 대학교에서 체육학사와 석사를 공부하고 러시아 국립 체육 스포츠 관광 대학교에서 체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M. Div)과 고신대학교 선교목회 대학원(Th. M)을 졸업했다. 현재 고신대학교 특수 선교학부 스포츠 선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고신 총회 파송 선교사로도 섬겼으며, 모스크바 태권도 선교 센터를 창립했고, 러시아 태권도 협회 기술 위원장과 태권도 국가 대표 수석 코치로서 대표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또한 현재는 한국 대학 태권도 국가 대표 수석 코치직을 감당하고 있으며 아시아 선교학과 이사와 대한 건강 체육 진흥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The Effects that Sports Make on the World Mission

주요어

선교 , 스포츠, 전략, 전문인, 미전도 종족.

Abstract

The Effects that Sports Make on the World Mission

Prof. Dr. Jeong-Ki Lee

As the new millennium of 21st century for the age of mission emerges, if there is a new word that was accepted and welcomed by missionaries and mission experts is none other than Professionals'mission. Although this expression existed before, yet it did not attract interest from as many people as today. It demonstrates how rapidly the mission fields are changing. The sportsmission, that everyone enjoys, is a truly valuable tool for mission, which cannot be ignored, nor be subsided at all in the area of professionals' mission. Because sports mission provides a medium through which anybody can have easy access and enjoy as a community beyond national boundaries, ethnic, cultural and language limitations, and a contact point of conversation, Christians need to put effort and show deeper interest in it with strategic implementation for more effective mission work for this new age.

Keywords | sports, mission, Strategies, professional, the Unreached People Group

Ⅰ. 서론

하나님께서 새 천년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땅에 완연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도래(到來)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과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때가 되면 재림 주이신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천년을 그 어느 때보다도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을 총동원하여 마음껏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큰 명령이자 사랑의 기회로 봐야 한다. 이 같은 중차대한 사명(使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선교에 대한 전략(戰略) 부재로 뜻하지 않는 곳에서 유리(遊離)하거나, 전혀 현장감 없는 방법으로 시간만 낭비한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더더구나 식어버린 가슴과 구태 의연한 선교 전략으로는 변화무쌍(變化無雙)한 선교지를 공략하기로는 참으로 요원(遙遠)할 뿐만 아니라 거듭 실망스러운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거시적(巨視的)인 안목으로 시시각각 급변하는 선교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반응과 전략들(戰略)을 속히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기초 없이도 약진(躍進)할 수가 있었으나, 21세기 세계 선교 현장 속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갈수록 선교지 들마다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안타까운 비보들(悲報)은 우리의 가슴을 터지게 한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엄중한 대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인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만큼 보다 더 적극적이면서도 겸손히 수종(隨從)들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선교를 향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인 만큼 전략(戰略)

중에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전 세계 곳곳에서 점점 더 선교사들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제한시키는 나라들이 날로 늘어 가고 있는 현실적인 위기임과 동시에 이슬람을 비롯한 타 종교의 득세(得勢)도 우리의 가슴을 서늘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대신 해서 저들에게로 갈꼬(이사야 6:8)"라며 애타게 일꾼을 찾고 계신다. 비록 척박한 선교 현장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감당할만한 신실한 일꾼들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남은 땅을 향해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과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때에 본 연구에서는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의 세계 현황들을 파악하고, 얼마나 세계 선교 현장이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가에 따른 정확한 현장을 직시하면서 적절한 전략들을 연구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북위 10도에서 40도에 걸려 있는 남아 선교 현장들을 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정통적인 선교 사역 형태인 목회자 선교사들의 입국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전문인 선교사들의 활동이 요청되고 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또한 그곳은 불교권, 회교권, 공산권, 모슬렘 권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들의 요청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그 중에 전혀 이전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영역인 스포츠가 선교의 좋은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야 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물론 스포츠 선교에 대한 이전의 선행 논문들이 그리 많지 않아 아쉽기는 하나 스포츠가 지구촌 구석구석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운 만큼 보다 더 심도 깊게 연구하여 효과적인 전략 사역들로 쓰임 받기를 기대한다. 즉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스포츠를

통한 선교 사역의 방향성과 더불어 결론적으로 이 스포츠를 통한 우리의 관심과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Ⅱ. 세계 선교 동향과 과제

1. 세계 선교 동향

풀러 신학교 제 3대 선교대학원장인 폴 피어슨(Paul. E. Pierson, 1998: 1-2)은 '21세기 선교동향(Trends in Mission in the 21st Century)'에서 국제화의 이면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suffering people)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10억 명의 인구가 하루 생활비 1달러로 생활하고 있으며, 평균 25%의 인구가 저(低) 영양 상태로 호소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난민 중 62%가 사하라 남아프리카, 남중아시아, 중국 등에 집중해 있다. 이는 전쟁, 재난, 종교, 정치적 이유에 근원 한 것이며, 식량 불안정과 보건위생의 문제, 신변의 위협, 여성인권, 어린이 교육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일명 'Yellow Window' 지역은 기아, 만성 영양 부족,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고통 받는 식품, 영양의 상대적 저(低)개발 지역을 가리킨다. 이 지역은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의 90%가 분포해 있는데 반해 선교사의 입국을 제한되고 있는 창의적 지역임을 밝히고 있다.

더더구나 현재 가장 시급한 선교적인 과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절박한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복음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닫혀져 가는 지역들이 가면 갈수록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타종교의 득세(得勢)와 어두운 영들의 도전으로 인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타종교의 도전 역시 어머 어마한 큰 영적 파괴력을

안고 도전해 오는 만큼 자칫 주저하는 사이에 우리 온 세계가 잠식당하는 분위기이다. 마치 중동과 중국 곳곳에서 발원(發源)하여 급속도로 확산되는 사막의 황폐함이 온 세계를 뒤덮어 버릴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영적 도전 앞에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웅크리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변화에 부합한 전략(戰略)으로 정공(正攻)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미 세계가 주시할 만큼 놀라운 성장을 하였고, 교회의 규모에 있어서나 한국 문화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주도적 위치에 있음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이제 선교사 파송 규모에 있어서도 선교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선교 강국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선교사의 숫자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져 있다(이태웅, 1994:76).

무엇보다도 선교학적인 과제(課題)는 아직도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선교사에 대한 인식(認識) 과 전략(戰略) 부재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선교사라면 정통적인 목회자 선교사로 제한시키거나 저들에게만 거는 기대가 단적인 한 예이다. 그러나 소수의 정통적인 목회자 선교사들의 숫자로는 급증하는 세계 인구에 비례해 볼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패턴(paten)으로는 복음으로 부터 소외 되어 있는 영혼들과 남은 황무지 땅을 개간(開墾)하기에는 너무나 멀고도 힘든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계 선교 현황을 바르게 직시(直視)하고, 새 선교 전략(strategy)를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전 세계는 거듭 빠른 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선교적인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이다.

첫 번째는 비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전통적 의미의 선교사인 목회자들의 입국 비자(visa)를 거부하는 국가와 종족들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다. 세계의 24,000개에 달하는 다양한 문화

종족 집단들 중에 최소 약 11,000개의 종족 집단이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초 문화권 지역에 살고 있다. 21세기에는 비기독교 인구의 83%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의미의 목회자 선교사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전 세계에서 기아와 빈곤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1분마다 어른 6명, 어린이 18명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1/5이 여전히 굶주린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통계다. 네 번째는 전 세계가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인공위성을 통하여 전 세계를 연결시켜 주지만 낙후된 지역은 여전히 고립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 할 뿐 아니라 교육, 전문 기술의 상호 개발 교류, 빈번한 여행, 회피 수단의 이민, 핵무기, 환경오염,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등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들은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시대인데 반해 여전히 전통적 개념의 소수인 목회자들만 가지고는 결코 그리스도가 명하신 이 엄청난 선교적인 과업(課業)을 완수하기에는 참으로 요원(遙遠)할 수밖에 없다(강승삼, 1998: 118-119). 뿐만 아니라 한 때 선교지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군도 등 소위 제 3세계라고 불려 지던 곳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선교국과 선교지가 따로 없고, 어디든지 선교가 필요한 곳이 되었다. 하지만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불교 권, 공산권 등 선교의 진전이 더딘 지역이 중요한 타문화권 선교 지역으로 남아있음에 보다 더 선교의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이젠 유럽 등 서구 지역 역시 선교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900년대만 해도 세계 2/3지역에서 지속적인 교회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오순절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성장이 눈에 띄게 상승 곡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보고다(John A. Siewert and Edna G. Valdea, 1997: 32). 반면에 지난 2007년 중반의 통계에 의하면 약 65억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은 약 21.35억이다. 인구 비율로 보면 약 33%에 해당한다. 각 종교별로는 모슬렘

13.3억, 힌두교 8.7억, 불교가 3.78억이다. 총 불신자는 약 45억이다. 이에 비하여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기독교인은 약 7억 명으로 나왔다(David B. Barrett and Todd M. Johnson, 1998 : 27). 그러나 앞으로 2025년까지 세계 인구는 83억 1천 200만이 될 것인데 그 중 49억 3천 900만 명이 아시아에, 15억 1천만 명이 아프리카에, 7억 4천 300만 명이 유럽에, 7억 600만 명이 라틴 아메리카에, 3억 7천 500만 명이 북미에, 그리고 3천 900만 명이 오세아니아에 살게 될 것이다(Myers, 1997:29; Barrett, 1999: 24-25). 이러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어짐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종교적인 성장세와 변화를 면밀하게 주시해야만 한다. 갈수록 모슬렘을 비롯한 타 종교의 거센 도전은 인구 증가율과 달리 전 세계 선교의 흐름과 판도를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실태를 구체화해서 새 사역을 구상해야만 할 때임을 시사(示唆)해 주고 있다.

20세기에 가장 커다란 선교의 장애물 중 하나였던 공산권의 붕괴로 새로운 선교의 기회가 활짝 열려졌고, 지금까지 무시되어지던 미전도 종족에 대한 새로운 선교시도가 활발히 시도 될 때에 놀라운 결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세계 인구 구조가 도시 중심으로 변화되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도시 선교 개념의 발전도 성장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 2/3세계 교회들이 세계 선교 사역에 동반자로 참여하게 되고, 적지 않은 양질(良質)의 선교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도 21세기 선교의 지속적인 성장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또한 서구교회를 중심으로 한 세계 기독교인의 커다란 경제적 성장도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위한 커다란 자원이 되고 있다(David B. Barrett and Todd M. Johnson, 1998: 27). 고무적인 현상은 이미 미주나 유럽 선교부의 선교사들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무척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 방향과 전략(strategy)들도 함께 세워서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선교 현황을 감지해 내는 감각이 아직도 무딘 상황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대 선교지의 상황(context)과 성경(text)적인 관계에서 전 세계 선교 전략(戰略)은 이전보다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R. J. Schreiter, 1985). 그래서 무너진 세계 선교현장 곳곳을 부지런히 수축(修築)하고, 주의 복음의 진지를 재구축(再構築)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2.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의 영적 도전

21세기 이후 가장 부각된 선교적 관심 영역은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선교라 하겠다.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에 대한 개념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복음주의 세계 선교 대회에서 랄프 윈터(Ralph D. Winter, 1924-2009)가 주창한 것으로서, 이는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 1897-1991)의 감추어진 부족(hidden people group)의 개념과 윌리암 카메룬 타운젠트(William C. Townsend, 1896-1982)가 주창한 감추어진 언어 그룹(hidden linguistic group)의 개념을 종합하여 감추어져 있어 전도되어지지 않은 종족의 개념으로서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의 단어를 정립하였다. 또한 윈터(Winter)는 이러한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에 대한 선교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언급하면서 철저한 연구와 전략적인 선교에 대해 강조하였다(신성주, 2010 : 1-2).

전 세계에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들의 숫자가 21세기에는 약 20억으로 추산하고는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땅을 향해 복음을 전할 자를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있다. 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접한 자들의 사명임을 제3차 로잔대회에 모인 교인들은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실제로 전 세계에 파송되는 선교사들 가운데 단지 3%만이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에게

로 파송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에 대한 선교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되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불신'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즉 아무리 수고의 땀을 흘려도 '좀처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무적인 것은 지난해보다도 선교사 파송이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동을 포함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 등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겨우 전체의 17% 밖에 되지 않음으로 전략적인 선교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다(강승삼, 2007). 이슬람권 국가들이 가장 많이 포함돼 있는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은 한 번도 복음에 대해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향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마태복음 28:18-20)"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 선교 실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선교는 현재 한국교회가 시급히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으로 꼽을 수 있다. 이들이 옛날 마게도냐 사람처럼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도우라(사도행전 16:6-10)"고 직접 손짓까지는 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백성들인 만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달려가 품어야 한다. 이제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이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을 빼고는 논의 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임무 앞에서 다시 한 번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을 향한 우리의 절절한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를 포함한 전 세계 교회들의 중요한 전략적 요소는 모든 나라와 교파, 단체를 초월한 적극적인 동역과 네트워킹(networking)이다. 데이빗 바렛이 지적한 것처럼 현재 전 세계의 교회는 세계를 복음화 시킬 만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중복'과 '경쟁'이라는 난제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종료시키지 못하고 있다(David B. Barrett and James Reapsome, 1988). 즉 중복과 경쟁을 피하는 것은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 지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획기적인 선교사의 방법이다. 이러한 운동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한 것이 네트워킹(networking)이다. 현재 이 전략의 시급성을 인식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단체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공유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들과 기꺼이 네트워킹(networking)도 시도하고 있다(Patrick Johnstone, 1993: 13).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21세기 최첨단을 걷는 이 시대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과학적인 혜택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하면 생활의 실제적인 빈곤 가운데 아사자(餓死者)들도 속출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여성들이 전혀 인간적인 대접은커녕 삶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박달 당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참혹한 영적 황무지라는 점이다.

Ⅲ. 전문인 선교사와 팀 사역의 필요성

1. 전문인 선교사

(1) 전문인 선교사의 필요성

룻 시멘스(Ruth E. Siemens, 1999: 29)에 의하면 이 시대 전문인 선교사의 성경적인 정의를 “타 문화권에서 직업 현장과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선교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저들은 타 문화권에서 성직자가 아닌 신분으로서 그의 헌신, 소명, 동기, 훈련 면에서 분명히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임선교사의 조력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부르심을 입은 "선교사"라고 말하고 있다.

선교학적인 측면(側面)에서 볼 때 이제는 선교의 난(難) 지대인 북위 10도에서 40도 구간의 선교 난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불교권, 회교권, 이슬람권, 공산권 지역에 선교를 집중해야 할 때다. 이곳은 일반 전통적인 목회자들의 입국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혹 입국한다 하더라고 기존 선교의 정통 양식인 목회적 사역은 불가능한 지역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 과제는 남아있는 이 선교 현장을 부지런히 개간(開墾)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이러한 작금(昨今)의 현실을 볼 때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시대는 비록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자 못지않은 영성을 지닌 전문인 평신도 사역자들이 요청된다. 즉 교회 개척과 신학교 사역만이 아닌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끄집어내어 현지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 형태이다. 이전에 우리나라도 최초에 입국한 외국 선교사들은 사역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교회 개척과 신학교 사역이 아닌 고아원과 양로원, 학교를 건립하여 실제 생활의 필요에 관심을 두면서 다양하게 섬겼었다. 이처럼 비록 세상 적으로 화려하지는 않다 해도 신실한 전문인 사역자들이 나가서 진정한 섬김을 감당해야 한다.

닫힌 국가와 영혼들을 향해 보다 더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전문인 사역은 우리가 스스로 창안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배 선교사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을 모델(model)로 제시 하신 것이다. 다시 한 번 최선의 위치에서 이 전문인 사역을 구사(驅使)해야 할 만큼 중요한 전략(strategy)이다. 이제 이 전문인 평신도 사역자들을 향해 마음껏 기대하며

기도로 지원해 줘야 할 때임을 인지해야 한다.

(2) 사도 바울의 전문인 사역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요한을 데리고 AD 46년부터 AD 48년까지 약 3년간 먼저 1차 선교여행을 떠났다. 제1차 선교여행 시에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갈라디아 지역의 도시에서 전문인 사역을 했음을 볼 수 있는데(행13:1~14), 이 때 사도 바울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고전 9:6)고 말하고 있다.

역시 제2차 선교여행 기간 동안에도(행 15:40~18:22)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8장 3절의 천막 만드는 일(Tent-making)을 했음을 보면서 삶 속에서 일의 중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2:9~10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깨우려고 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이 현지인들과 똑같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노동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함이었다. 사도 바울은 수고하고 애씀으로써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 일행은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일하는 작업장에서는 정오의 긴 휴식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일상적 생활을 통해 본을 보임으로써 복음을 증거 한 것이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데살로니가 후서 3:7~8). 그는 가르침의 진실성과 개종자들에게 상전에 대한 종의 태도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동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일했던 것이다(에베소서 6: 5~9, 골로새서 3:22~23)(Ruth, 1999: 31). 사도 바울은 제 3차 선교 여행 기간(사도행전 18:23~21:14)에도 저들과 함께 호흡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동일하게 노동사역을 선교의 중심 전략으로 세우고 있다. 특히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날마다 쉬지 않고 성경을 가르쳤는데(사도행전 20: 31), 그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성도들 간에 논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 때 사도 바울은 즉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서신을 발송했는데 그 편지 내용에도 그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고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가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고전 4:11-12). 이 같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친히 손으로 노동하며 생계를 유지했음을 볼 수 있게 된다.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 하면서 그는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불러 모은 뒤에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그런 중에도 그 부탁의 말씀 속에서도 먼저 자신이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노동으로 자립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았는지를 증거 하기도 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 20 : 32~35)". 바울의 제 3차에 걸친 선교여행 전반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노동 현장에서 일부러 직업적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굳어버린 저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이 전문인 사역은 참으로 중요한 영역이었음을 강조했고, 이를 토대로 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팀 사역의 필요성

이 시대는 반드시 신학을 이수해야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고전적인 사고(思考)에서 탈피(脫皮)해 어느 새 목회자가 아닌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전문인으로서 투철한 직업소명을 가지고 사역하는 전문 텐트메이커(tent-maker)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 옛날 우리 선배들의 주 전략(strategy)사역이기도 했던 단독 사역에서 이제는 팀(team)사역으로서의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는 어쩌면 헐리우드(Hollywood)의 유명한 영화 주인공들인 람보나 터미네이터와 같은 소수의 영웅적인 사역자들보다는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다양한 사역자들이 거룩한 선교라는 한 목적을 갖고 서로서로 깊은 지체의식 속에서 유기적으로 일해야 할 때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대안은 목회자 선교사 파송 중심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산인 평신도들을 세계 선교 현장에 동원하는 것이다. 특히 복음으로부터 남아 있는 지역들을 향한 주 패러다임(paradigm)은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됨은 거슬릴 수 없는 현실이다. 남은 과업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제자도에 기초한 선교적 재생산 구도로 회귀(回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상명령은 곧 “너희는 제자 삼으라(마 28: 19-20)”는 명령인데 제자도의 근간은 출중한 지도자가 많은 성과를 거두는데 있지 않고, 평범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소수의 제자들을 길러내고, 또 그들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제자들을 낳는(딤후 2: 2)이른바

승법번식(乘法繁殖)이 진행 되어야 한다.

오늘날 선교 신학의 동향(動向)을 조명해 볼 때 단순히 복음 전파의 의미로만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 문화권과의 만남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이것은 지리와 역사, 언어와 민족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문화적 차이가 가져다주는 문제점도 극복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 극복의 수단을 '접촉점'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언제든지 강력하고도 다이나믹(dynamic)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J.H. Bavinck, 1987: 99). 마치 프로 축구팀의 11명이 그라운드(ground)에서 경기에 임할 때 유기적인 움직임 속에서 전략적으로 공수(攻守)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선교적인 방향들이 그렇게 모아져야 한다. 악한 사탄들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모든 사역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모든 달란트와 역량들을 동원해서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 어쩌면 이전의 선교 현장에서의 움직임은 마치 정해진 위치에서 과녁을 향해 조준하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21세기 세계 선교현장은 타킷(target)이 마구 요동치는 어려움과 혼란함이 갈수록 더 가중되는 분위기다. 이에 우리는 함께 선교 현장을 주시(注視)하면서 과녁을 향해 정확히 조준(照準)해야 한다. 결국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 다양한 사역들을 설계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효과적인 전략으로 누룩처럼 현장을 변화 시켜 나가는 실제적인 싸움만이 승산이 있다.

Ⅳ. 스포츠 선교 전략

1. 스포츠의 개념

21세기를 흔히 '몸의 시대'라고 일컫는다. 그래서인지 물질문명과 황금만능을 강조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병약한 부자보자는 건강한 가난뱅이가 낫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잖다. 이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은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만큼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언급하고 있다(김정설, 박판수, 2002: 13).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스포트(sport)'란 용어는 '체육'이란 말과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하남길, 2002: 80). 일반적으로 스포츠는 '전환 한다'는 뜻의 중세 영어의 동사 'sporten'이나 'disport' 혹은 라틴어 'disporture'에 어원을 두고 있다. 이 말은 '방향전환' 또는 'port(나르다)'를 확대 해석한 기본 의미와 오락(Recreation), 싸움(dispurtes)이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다(임승현 외, 2009: 114). 또한 고대 프랑스어인 desport에서 유래된 말은 '즐겁게 놀다, 일을 중지하다'라는 파생어로도 알려져 있다(신성휴, 한왕택, 1993: 14). 스포츠의 발상지인 영국의 경우 스포트(sport)와 게임(game)을 유사한 용어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특히 스포트(sport)는 왕실과 귀족들의 동물 사냥과 낚시를 비롯한 다양한 여가 활동을 뜻했다(졸저, 1996: 2장 참조).[1)]

이 시대 넓은 의미의 '스포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 경쟁 스포츠들과 함께 전통적 민속놀이, 낚시, 요트, 사냥, 하이킹, 등산 등을 의미하는 가하면 비경쟁적인 레저(leisure) 스포츠들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엄연히 좁은 의미에서는 '경쟁적인 신체 활동의 제도화된 형태'로 정의 할 수 있다.

---

1) 그리고 스포츠맨이 사냥꾼의 개념으로 사용된 실례는 토마스 휴즈(Thomas Hughes) 지음, 하남길 졸역, 『머스큐러 크리스천 : 톰 브라운의 학창 시절』(서울 : 21세기교육사, 1999)"에 잘 나타나 있다.

결국 종합적인 스포츠의 정의라면 '제도화 되고 경쟁적인 신체 활동을 바탕으로 신체 활동의 주체인 인간의 내면과 정신 활동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임승현 외, 2009: 114). 즉 신체를 통해서 건강한 정신과 삶까지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스포츠의 좋은 방향이자 목적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기계 문명이 발달된 현대 생활의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몸을 적게 사용하고 활동하는 만큼 운동 부족 상태에 빠져 있다. 소위 운동 부족병에 걸려 있는 것이다(하남길, 2002: 97).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각자의 나이와 건강에 따라 개별성과 환경에 맞는 체육활동을 선택하여 반드시 생활해야 할 만큼 스포츠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하남길, 2002: 98). 인간은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와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건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건강이 주어지지 않는 법이다. 인간은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도 성실하게 운동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참 중요하다.

현대에 이르러서 이제 스포츠는 각국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매체가 올림픽(Olympic)이다. 문화와 언어, 민족의 국경을 뛰어 넘어 모든 인류의 만남이 스포츠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올림픽(Olympic)정신이기 때문에 참으로 가치 있게 평가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올림픽을 통해 세계 여러 국가 간의 친선, 평화, 우호의 증진을 추구하는 교두보 역할도 한다(하남길, 2002: 442). 이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스포츠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할 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 선교의 정의

선교란 단어는 영어로 mission이다. 이것은 라틴어 미토(mitto)에서 나온 것으로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28:19-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구절에서 이 단어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의 영역을 떠나 다른 문화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김성환, 2007: 45). 또한 선교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응답하는 길이다. 더욱 구체적인 선교는 '교회에서 파송된 복음 전도자들이 온 세상에 가서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민족과 집단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활동'을 뜻한다(김혁민, 2006: 57).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맡겨진 이 선교는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참으로 귀한 사역이다.

결국 선교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며 교회의 내재적 사명이다. 선교 활동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은 선교를 통하여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돌아오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온 열정을 다해야 한다(김혁민, 2006: 66).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마음껏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민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모든 족속들은 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이증재, 2005: 45).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스포츠 선교의 이해와 과제

(1) 스포츠 선교의 이해

스포츠 선교란 주님의 최후 지상명령인 복음전도 사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스포츠맨들이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체육 프로그램을 매개체(媒介體)로 하여 활동하는 모든 총체적 노력을 뜻한다(강신경, 1999: 46).

일반적으로 스포츠 선교 사역의 목적은 스포츠를 매개체(媒介體)로 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교제(Fellowship)하면서 복음 전도(Evangelism)와 제자화(Disciple)등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스포츠 선교 방안은 스포츠를 통하여 모여지고 복음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케 하며, 경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남녀를 모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김기환, 2008: 26). 오늘날 우리는 각종 매스컴(mass com)을 통해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게 되는 특이한 장면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이 승리하는 순간에 즉시 그라운드(ground)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다. 또는 올림픽이나 중요한 세계 대회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시상식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들이 스포츠 선교의 새 역사를 만드는 근간(根幹)이 되고 있다. 이전에는 간혹 이러한 모습이 비춰질 때는 다소 어색함도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만큼 많은 기독 스포츠 인들이 기쁨으로 자신의 믿음을 승리로 표현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후 여러 영역에서 많은 부흥을 이루어 오고 있는데 이 스포츠 선교를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본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매개체(媒介體)가 스포츠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다. 그러므

로 이제 스포츠 선교를 통해 지구촌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복음의 닫힌 국가들까지도 전략적인 부분에서 보다 더 쉽게 침투해 들어가서 복음의 포문을 열고 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미 사도 바울 당시에도 각 도시들과 나라들에 대해 복음 선교를 위해 복음 전파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으로 스포츠 즉 경주하는 모습들을 자주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특히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선교적 행위를 당시 '경기의 전령자'라는 말을 사용하여 복음 전파의 사역자인 것을 설명하고 있음도 흥미롭다. 바울이 당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잘 된 경기장의 전령자 위치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한 것같이 오늘의 신앙 경기장의 선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며, 죽음에서 승리한 예수님을 푯대삼아 달려가고, 싸우고, 씨름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스포츠와 관련된 선교를 언급하고 있다(최호영, 1995: 37). 우리는 이 시대에 어쩌면 묻혀있는 보화를 캐내는 열심과 감격으로 이 스포츠 선교를 잘 개발해야 한다.

(2) 스포츠의 선교적인 과제

요즘 국제 정세는 올림픽 경기가 너무나 과열된 나머지 약물 복용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 구도로 가는가 하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 이는 스포츠의 가치(價値)와 이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영무, 1991: 8). 근대 올림픽에서는 스포츠에 대해서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강하게"라는 표어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감행되는 수많은 스포츠의 자태(姿態)는 너무나 치열한 경쟁과 결과만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성 상실과 마비되어 버린 양심으로 인해 원 스포츠의 고귀한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 특히 몇몇 인기 있는 종목에서 배출되는 스포츠 스타(star)들만을 심심찮게 우상화 하거나 묘한 분위기를 조장하는가 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연봉을 통해 메마른 땅을 더욱더 갈증 나게 만들고 있다. 누구나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여 스포츠를 통해서 즐거움과 행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다. 또한 기꺼이 승자를 향해서는 감격 속에서 박수갈채를 보내주고, 또 패자에게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줄 수 있는 풍토(風土)가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 결국 스포츠를 통해 누구나 스트레스(stress)를 해소(解消)하여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 줌으로서 자신과 가정, 국가를 밝게 세워 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인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스포츠의 원 목적이다. 이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영육을 잘 관리함으로 인하여 종래에는 세상 열방 가운데 거룩한 복음을 들고 달려갈 수 있는 스포츠인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4. 스포츠 선교의 방향과 전략

(1) 스포츠 선교의 방향

시대적인 정서와 세계화에 맞게 선교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 선교이다.

지금은 각 나라마다 인종과 언어 그리고 종교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념과 사상을 달리하는 정치적, 사회적 대립은 날로 심화되어 자국의 이권(利權)과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경쟁과 분재(分財)의 불씨들은 대화의 경직을 가져왔고, 문호(門戶)개방을 꺼리면서 폐쇄적인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들과 현실 속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선교 명령과 전도의 사명을 준행함에 있어 스포츠를 통한 선교는 상당한 기대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라는 운동경기는 이념과 사상 등을 초월하여 승리의 목표 아래 한곳으로 자연스럽게 모이도록 하는데 강점을 갖고 있다(조종남, 1987, 43). 즉 스포츠는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모이고 금방 관심도 집중 시킬 수 있는가 하면 세계 각국 선수들과의 만남과 접촉도 가능하다. 그래서 스포츠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현대 선교의 가장 좋은 매개체(媒介體)라고 할 수 있다(김상복, 1990:12). 현재 전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까지도 다양한 종목을 즐기는 이 시대인 만큼 이 스포츠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사람과도 쉽게 소통 할 수 있는 좋은 접촉점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포츠를 통한 새로운 전략(戰略)들이 잘 구상되어진다면 영적 추수의 기쁨은 배가(倍加)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개발(開發)되지 않은 이 스포츠 영역을 선교 학자들과 스포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보다 더 심도 깊이 연구한다면 마지막 때에 영적 황폐함이 짙은 땅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보다 더 아름답고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고 본다. 엄청난 보고(寶庫)들이 이 스포츠에 담겨져 있고, 또 스포츠는 선교는 무한한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는 만큼 정통적인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타 직종의 전문인 선교사들과 함께 풍성한 선교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스포츠를 통한 선교 전략(戰略)

① 스포츠를 통한 접촉점을 활용한다.

스포츠를 고작 일반 교회의 성도들의 게임(game)이나 레저(leisure)활동

정도로 여기고 끝내서는 안 된다. 영혼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스포츠 선교는 우선순위를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누가복음 10: 27)고 하신 말씀에 충실하면서 그들을 한 공동체의 지체로 삼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혹 일부 보수교단과 선교사들은 스포츠를 통한 전도와 선교를 아직도 터부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역시 신체 활동의 장점을 인정하였고, 스포츠 활동을 죄악시하지 않았다. 종교개혁 이후 개혁자들도 스포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권장하였다. 당시 스포츠는 음주, 도박 등의 퇴폐 행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代案)으로도 제시될 정도였다. 이 시대는 스포츠를 통한 전도와 선교가 매우 효과적인 만큼 보다 더 구체적이고도 넓은 시야로 접근하여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② 기독인 스포츠 스타(star)들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를 확보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선수들을 잘 발굴(發掘)해서 이들을 통해 선교의 교두보(橋頭堡)로 삼는 전략(戰略)을 세운다. 기독인 스포츠 스타(star) 한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의 문턱을 쉽게 넘나드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역대 올림픽에서 수많은 크리스천 선수들이 각 종목의 최정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얼마나 요동치게 했는지 모른다. 저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동안 전혀 믿지 않았던 수많은 넌-크리스천(un-christian)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존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단초(端初)를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이영표, 송종국 선수들을 포함한 수많은 기독인 축구 스타(star)들의 눈부신 활동은 월드컵을 전후해서 적잖은 중고등학생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좋은 통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04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태권도의 문대성 선수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역도의 장미란 선수의 마지막 결승 장면은 수많은 영적 메시지를 던져주기에 충분한 한편의 드라마(drama)였다. 세계 최고의 기량들을 겸비한 상대 선수들을 화끈하게 제압하고 마침내 결승전에도 완벽하게 승리한 직후에 바로 그 매트(mat)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장면은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부터 영적인 도전을 고동치게 만들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다.

세계 정치, 인종, 문화, 종교의 국경선을 뛰어 넘어서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겸비한 젊은 스포츠 스타(star)들을 많이 육성해야 할 것이다.

③ 기독인 스포츠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그곳이 예배처가 되게 한다.

한 명의 지도자는 다수(多數)의 제자들을 거느릴 만큼 적잖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 있는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각 시합에 임하는 팀들 중에는 지도자가 신실한 크리스천 일 때 그 팀 전체가 예수 믿고 교회로 나오는 것을 어렵잖게 목도할 수 있다.

현 탁구 국가 대표 팀 감독인 현정화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현정화 감독으로 인해서 현역 국가 대표 탁구 선수 전원이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준다. 또 전 축구 국가 대표 팀 감독이자 수원 삼성 축구단 감독이었던 차범근 씨 역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매 경기 전후에 조용히 벤치(bench)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방송 매체를 타고 전 세계를 뒤덮던 감동적인 모습 역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해외에서 스포츠 선교의 문을 연 대표적인 종목은 태권도였다. 수많은 크리스천 태권도 사범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교포 사회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태권도를 통하여 친교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나아가 선교의 귀중한

도구로서 쓰임 받고 있다. 한명의 변화된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큰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이들을 충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5. 스포츠를 통한 선교적인 효과

경제 원리 가운데 '적은 투자로 많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올인(all-in)해야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정석(定石)이다. 21세기 세계 선교 시대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남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동원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사역에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① 신분 확보와 정착이 용이(容易)하다.

현재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아 있는 선교지이자 닫혀 있는 선교 지역들은 대부분 불교 권, 회교권, 모슬렘권, 공산권 지역들이다. 그곳은 일반적인 선교사라는 타이틀(title)보다는 스포츠맨이나 체육 지도자라는 직함이 도리어 현장에서 정착하기도 활동하기도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가족들까지도 동반했을 때는 충분한 안전을 보장 받아야 함으로 현지에서 신분의 확실성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② 젊은 계층과의 접촉이 용이(容易)하다.

선교지에서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들이라 해도 언어와 문화가 다른 현지 청소년들을 만날 만한 매개체를 확보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그 만큼 시간과 정성이 많이 요구되는 만큼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는데 있어서 많은 전략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스포츠는 누구나 좋아하는 교제이자 놀이 문화의 교두보가 형성되는 만큼 청소년들과 만나서 함께 땀을 흘리면

서 복음 전하는데 매우 큰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자양육을 효율성을 들 수 있다.

스포츠라는 매개체(媒介體)는 스포츠맨들만의 매력인 집중력, 순수성, 인내력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운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매일 만나는 장점과 더불어 스승과 제자 간의 강한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어 있는 만큼 제자 훈련이라는 복음의 역사를 한층 더 기대하게 만들어 준다.

④ 자비량(自備糧)과 재 파송이 가능하다.

스포츠 지도자들은 국가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파송 받은 나라에서 일부 자비량(自備糧)도 가능 하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여 즐거이 재 파송하는 시스템(system)을 구축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을 향한 계속적인 사역과 성장에 많은 자양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를 통한 선교사들이 광범위하게 여러 모양으로 활동하면서 얻어지는 많은 열매에 대해서, 기쁜 보고들이 실제로 올라오고 있다. 특히 러시아를 포함한 영적으로 얼어붙은 땅에서도 스포츠를 통한 귀한 사역들이 열매로 익어가고 있다.

6. 스포츠를 통한 선교 사례 보고

1) 축구 선교

축구의 특성상 경기를 단 한 번 갖기만 하여도 동일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매우 친밀해 지는 특성이 있다. 축구 선교는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경기 전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축구 활동을 통하여 맺어진 친분을 매개로 하여 선교 팀이 주최하는 부흥 집회에 이 사람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지난 1980년 후반부터 창단된 국내의 유명한 할렐루야 축구단의 활약상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타국과의 친선 경기를 가질 때에 축구를 좋아하는 이들을 모아서 복음 전하는데 참으로 유리한 장점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 큐슈대학에서 축구로 선교하는 주승규 선교사(임수택, 2010: 258)의 활동을 보더라도 선명하게 이 스포츠 선교의 저력을 또 한 번 엿볼 수 있다. 그가 이끄는 아마 축구팀을 보면서 스포츠 선교가 단시간에도 효과가 나타나지만 장기 선교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선수로 등록된 사람들의 출신 나라를 보면 그 다양성에 놀라게 된다. 감독은 주승규(한국)이고, 골키퍼는 우즈베키스탄 선수다. 그리고 수비수는 카크이쇼(중국), 마사노리 (일본), 브라드(세르비아), 텐(중국)인 반면에 미드필더는 니게루(포루투칼), 코켄(중국), 아드리안(브라질), 엑스(캄보디아)이고, 마지막으로 공격수는 다루(캄보디아)와 미루사도(보스니아)이다. 12명의 팀원들을 보면 그 중 9명의 선수들의 출신 나라와 민족성이 다르다. 유럽 남미를 비롯하여 아시아 각국에서 온 청년들이 연합하여 한 팀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은 축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매 주 만나 친근하게 교제하며 지상명령을 이루는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스포츠가 제공하는 즐거움 때문이고, 그것은 그 즐거움을 갖도록 하는 명백한 도구적 특성을 보여준다.

2) 태권도 선교

특히 한국 국기인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 종목인 만큼 태권도 사범으로 접근하여 활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효과적인 장점이 있다. 현재 전 세계에

태권도 선교사들이 흩어져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보고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서 아프칸니스탄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오랜 전쟁으로 실의에 빠져있었고, 슬픔과 눈물이 자욱했던 그 땅에서 올림픽이라는 세계의 화합과 평화의 장이라고 일컫는 행사에서 동메달이 나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서 출발하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그 종목이 바로 태권도 종목이었다. 아프칸 건국 이래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동메달 획득이라는 큰 축제가 펼쳐졌는데 그 동메달 리스트가 바로 태권도 종목이었다. 그런데 그 태권도를 통해서 동메달을 획득케 한 국가 대표 감독이 바로 M 이라는 태권도 선교사이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귀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V. 제언 및 결론

한국교회는 아직도 스포츠 선교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국적으로 교회 스포츠 팀(축구, 탁구, 배드민턴 등)은 증가 추세에 있고 많은 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고 스포츠 선교를 실현할 시설(운동장, 체육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선교사 양성과 파송에 대한 이해 부족과 더불어 지원할 재정적인 면도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교회가 스포츠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심을 갖고 사역자 양성과 제반시설 마련에 투자하고 스포츠 문화를 통한 선교 방안 모색에 온갖 힘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계 선교가 한층 더 도약하는 놀라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현재 가장 큰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점점 더 대두되고 있는 노령화와 청소년층의 감소현상인데 이것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실제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교회학교 교육현장의 전문성 있는 교사부족, 학원공부로 인한 청소년들의 시간 부족, 컴퓨터나 전자오락 같은 매체들로 인한 사회화 부족 등은 교회학교의 감소를 부르는 것도 실질적인 요소이자 과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살리고 청소년들을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할 대안을 모색해야 함과 동시에 새 천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교회의 부흥의 향한 필수적인 자양분을 찾아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포츠를 통한 선교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스포츠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고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이 시대는 교회가 아닌 운동장에서 그들을 먼저 만남으로서 부담 없이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장점이 발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이 기독인 스포츠맨들과 지도자들을 교회와 선교부가 잘 협력하여 육성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드러나게 하는데 귀하게 파송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 세계에 스포츠 선교사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아우성이기 때문이다. 한명의 준비된 사역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될 것이다.

지난 18-19세기 선교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비어 있는 선교지에 갈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면, 오늘날 21세기 선교의 난제(難題)로 새롭게 부상(浮上)하는 것은 종종 우리 주변에 훌륭한 선교사들이 자원하곤 있지만 갈수록 선교지가 닫혀 지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다. 흔히 선교학적인 측면(側面)에서 말하는 북위 10/40도에 걸려 있는 나라들은 선교사들이 마땅히 들어가야 할 남은 지역들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의 입국이 급격히 제한(制限)됨과 동시에 선교사들의 활동 영역이 너무나 제약(制約) 받는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을 향해서 누군가는 달려가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을 심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열방을 넘나들며 영광스런 복음의 씨앗들을 심고, 그래서 즐거이 열매들을 거두어야만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한해, 이 천년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 담긴 밝은 미소(微笑)를 보내어 주실 줄로 확신한다.

이미 사단은 현 시대에도 여지없이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하여 3S(Sex, Screen, Sports)를 마치 자기의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다. 원래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만큼 우리는 다시 사단으로부터 찾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귀한 선교의 도구로 정확하게 활용(活用)해야 할 필요와 책임이 있다. 이미 우리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스포츠(Sports)의 순수한 원래의 의미가 아닌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우리는 이 스포츠(Sports)를 다시 찾아와 바르게 평가하고 제대로 연구 활용(活用)한다면 훌륭한 선교의 도구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현장에 잘 부합하는 스포츠 선교사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야 한다. 전 세계를 정확히 보는 선교적 안목으로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 스포츠 전문인 선교사들을 잘 훈련 시켜 전 열방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름다운 선교열매와 꽃을 피우도록 파송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승삼(1998). 『21세기 선교 길라잡이』. 서울: 생명의 말씀사.118-119.

강신경(1999), "전문인 선교 시대의 스포츠를 통한 창의적 접근 지역 선교방안".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강승삼(2007).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 선교 포럼 발표.

김정설, 박판수(2002). 『건강 길라잡이』. 부산: 효민출판사. 13.

김상복(1992). 『구소련 선교 핸드북』. 서울 : 도서출판 햇불.

김혁민(2006). "외방 선교를 위한 선교사 양성과 파견". 석사학위 논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김기환(2008), "태권도 수련을 통한 기독교 선교 접근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김상복(1990). "축구와 선교" 할렐루야 축구단 10주년 특집호. 12.

김장환(1985). "귀한 축복 속에서 더 큰 영광을". 임마누엘 축구단 3주년 특집호. 5.

도날드 맥가브란(1993).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광순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세계체육인선교회(1997). 『스포츠 선교의 정의』. 서울; 선교 타임즈 3월호.

서인석(1997). 『CIS 독립 연합 국가 포인트』. 서울: 한민족 여행사.

서정운(1988). 『교회와 선교』. 서울: 도서 출판두란노.

신경규(2009). 『고신선교 제 5호』. "전문인 선교사 동원전략". 부산: 고신선교연구소. 153.

신성주(2010). "선교동향 ". 제5차 세계선교 전략 회의(NCOWE V).

신성휴, 한왕택(1993): 『현대 스포츠론』. 서울: 성균관대 출판부. 14.

송혜룡(1993), 『스포츠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 전예원출판사. 228.

이태웅(1994). 『한국 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 해외 선교회 출판부.76.

이증재(2005). "타 문화권 교회 개척 설립 연구".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이영무(1991). “스포츠 선교의 효율화 방안 연구”『체육 선교』 통권 제 26호. 세계 체육인 선교회.

임승현 외(2009).『현대 체육 원리의 이해』. 대구: 대구대학교출판부.114.

임수택(2010).『교회 스포츠』. “주승규 선교사 일본축구 선교사역”. 서울 : 쿰란 출판사. 258.

졸저(1996).『영국의 엘리트 교육과 애틀레티시즘』. 서울: 21세기교육사. 2장 참조.

최호영(1995),『기독교선교와 스포츠와의 상관성 연구』. 서울: 장로신학대학교. 37.

차원호(1987).『지상명령과선교사명』.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0.

크리스티 윌슨(1989).『현대의 자비량 선교사들』, 김만풍 역. 서울: 순출판사. 23.

하남길(2002).『체육 원리 강좌 움직임 예술 과학의 이해』. 서울 : 도서출판 대한 미디어. 97.

하남길(1999).『머스큐러 크리스천 : 톰 브라운의 학창 시절』. 서울 : 21세기교육사.

허버트 케인(1986).『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백인숙 역. 서울: 두란노 서원

한국선교정보연구센터 편(1996).『한국선교핸드북』. 서울: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헨드릭슨(1985).『헤드릭슨주석』. “목회서신”. 서울: 아가페출판사. 205.

홍남기(2008).『스포츠와 태권도를 통한 선교』. 장로회 신학대학원 석사 논문. 9.

David B. Barrett and Todd M. Johnson(1998). “Annual Statistical Table on Global Mission: 1998,”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 22, No. 1. 27.

John A. Siewert and Edna G. Valdea, eds., Mission Handbook (Monrovia: MARC, 1997), 32.

J. H. Bavinck(1987).『기독교 선교와 세계 문화』. 권순태역. 서울 : 성광문화사. P99.

Patrick Johnstone(1993). Operation World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29.

Paul E. Pierson(1998). “Trends in Mission in the 21st Century”.

Ruth E. Siemens(1999) 직업 선교 . IVP. 31

R. J. Schreiter(1985), Constructing Local Theology (Maryknoll: Orbis. Myers 1997:29; Barrett using U.N. statistics giving slightly lower figures, 1999:24-25).

Wayne Cordeiro(2000).『팀으로 이끄는 교회』김경섭 역. 서울 : 도서출판 프리셉트. 190.